

인간의 삶에 대한 Chaucer의 비판적 시선*

—Troilus and Criseyde에서 에필로그의 역할—

張 敬 烈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I

문학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가 특정 작품의 <신비화>에 바쳐져 왔음을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의 작품에 불멸의 신화적 의미와 후광을 부여하고, 이를 지켜나가려는 작업이 문학연구라는 이름 아래 수행되어 왔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아울러, 이와 같은 신비화로 인해, 적지 않은 경우, 문학작품의 의미가 인습적인 고정관념의 틀 속에 묶여지게 되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선부튼 추상화와 도식화를 거부하는 인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문학이라면, 따라서 삶의 추상화와 도식화를 거부하는 데에 문학의 존재이유와 영광이 놓인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문학작품의 고정관념화는 정당화될 수 없다. 사실, 문학작품이 지니는 구체성으로 인해 문학의 이론화와 과학화는 결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문학이 지니는 영광을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상처뿐인 영광을 지켜나감으로써 문학은 문학과울 수 있으며, 또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문학작품의 고정관념화에 경계하고 이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놓인다. 물론, 문학작품의 새로움을 확인하려는 모든 작업의 이면에는 항상 또 하나의 새로운 고정관념에 대한 무의식적인 동경이 놓여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궁극적으로 시지포스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즉, 새로운 고정관념화를 피하기 위해, 프로메테우스와 같이 동일한 작업을 끊임없이 되풀이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살아 볼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같은 이유에서 우리의 작업도 일단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Chaucer의 *Troilus and Criseyde*에 대한 Kittredge의 발언에 주목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Troilus and Criseyde*는 “사랑의 신을 찬양하고 그 신의 놀라운 힘에 찬사를 보내는 시”¹⁾라는 Kittredge의 발언은 Chaucer 학자들 사이에 불변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사실상 이 발언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적

* 이 논문은 1990년도 서울대학교 대학발전기금 신경연구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1) George Lyman Kittredge, *Chaucer and his Poetry* (Cambridge, MA: Harvard UP, 1915) 142.

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 대한 조명은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Kittredge의 발언 그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 시의 에필로그는 단순히 끄트머리에 갖다 붙인 도덕적 교훈”이라는 주장을 뒤엎고, “시 전체를 통해 암시되고 있는 내용”²⁾임을 반증해 보일 수도 있다. 즉, 이 작품은 인간의 사랑에 대한 반어적인 관찰일 수도 있거니와, 표면적으로는 밝고 깨끗해 보이더라도, 적징거리를 유지하고 관찰해 보면 어두운 면을 숨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시각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인간의 사랑을 “맹목적 욕망”(blynde lust) 또는 “세속적 허영”(worldly vanyte)³⁾으로 비판하고 있는 이 작품의 에필로그는 단순히 “갖다 붙인 도덕적 교훈”으로 격하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Chaucer는 이 작품의 반어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인간의 사랑이 지나는 또 다른 측면을 전략적으로 에필로그에 이르기까지 숨기려고 했었는지도 모른다. 실로 “많은 독자들이 Chaucer 고유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평정을 잃지 않는, 반어적이면서도 여전히 참을성을 유지하는, 정신의 틀”⁴⁾은 이 작품의 에필로그를 통해서만 아니라 작품 전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상, 에필로그의 도덕적 교훈이 눈에 거슬릴 뿐만 아니라 앞의 이야기와도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투의 주장이 수많은 Chaucer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⁵⁾ 또한, 이러한

2) James L. Shanley, “The *Troilus* and Christian Love,” in *Chaucer Criticism: Troilus and Criseyde & The Minor Poems*, ed. Richard J. Schoeck and Jerome Taylor (London: U of Notre Dame P, 1961) 136.

어디에서부터 에필로그가 시작되는지 *Troilus and Criseyde*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나,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조가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감지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어조의 바뀜이 정확하게 어떤聯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비평가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부분과는 달리 명백한 도덕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9 개의聯을 에필로그라는 이름 아래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3) Geoffrey Chaucer, *Troilus and Criseyde, The Complete Poetry and Prose*, ed. John H. Fisher (New York: Holt, 1977) V. 1824, 1837. 이 작품에 대한 앞으로의 인용은 본문에서 밝히기로 함.

4) John P. McCall, “*Troilus and Criseyde*,” in *Companion to Chaucer Studies*, ed. Beryl Rowland (Toronto: Oxford UP, 1968) 375.

5) 하나의 적절한 예로, J. S. P. Tatlock는 “에필로그가 주는 느낌은 첫부분이나 그밖에 어느 곳에서도 결코 미리 감지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의 기분과 이야기를 끝낼 때의 기분이 다른 상태에 있다”라고 주장한다(“The Epilog of Chaucer’s *Troilus*,” in *Modern Philology*, XVIII [1921] 636). 비슷한 어조의 비판을 Walter C. Curry도 하고 있거니와, “에필로그에서 시인은 전혀 그 어떤 암시적 경고조차 하지 않은 채, 이제까지 전개되어 왔던 모든 것을 감각스럽게 부정하고 반대하고 있다”(Chaucer and the Mediaeval Sciences [New York: Barnes, 1960] 294)라고 주장한다. 이어서 그는 무슨 이유로 “즐거움 듯이 시인이 우리에게 제시했던 *Troilus* 와 *Criseyde*의 사랑 이야기가, 또한 비극으로 변해가는 것을 동경심어린 눈으로 우리가 바라 보던 그 사랑 이야기가, 이제는 세속적 허영으로 저주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까지 말한다 (294-95). Ian Robinson과 같은 비평가는 여기에다 한 수 더 더서, 이 작품을 “하나의 ‘대단한’ 실베작”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시의 마지막 부분과 시적 부분 또는 중간 부분을 연결할 방도가 없음”(Chaucer and the English Tradition [London: Cambridge UP, 1972] 73-74)을 지적하고 있다.

주장에 대항하여 에필로그를 정당화하려는 시도 역시 일부에서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의 대부분은 *Troilus and Criseyde*가 “사랑의 신을 찬양하는 시”라는 고정관념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적이고 변명적인 어조를 띠고 있다. 즉, Chaucer의 위대성을 변호하기 위하여 마지못해 정당화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심지어는, 이 시를 “위대한 예술작품”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Kittredge 역시 “그렇게 오랜 동안 유지해 온 자세를 에필로그에서 완전히 포기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여기에 이 에필로그가 갖는 뿌리칠 수 없는 매력이 놓인다”라는 투의 무책임한 변호로 일관하고 있다.⁶⁾ Kittredge가 말하는 “뿌리칠 수 없는 매력”이 무엇이건 간에, 그의 논리를 따르게 되면, Chaucer가 “이제까지 유지해 온 자세”를 포기한 까닭은, 마지막에 나오는 에필로그의 도덕적 교훈을 뿌리칠 수 없을 정도의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투의 앞뒤가 뒤바뀐 주장 역시 가능하게 된다. 시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가 단 몇줄의 마지막 도덕적 교훈을 보다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反證的인 에일 뿐이라는 투의 암시는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작품의 의미를 단순히 몇 마디의 도덕적 교훈과 연결시키려는 시도 자체를 E. Talbot Donaldson과 같이 거부할 수도 있다. 그에 의하면, 이 시에서 진정으로 문제되는 것은 소박한 “도덕성”(moralitee)이 아니라, 이 시의 “마지막 18 聯”에서 “나레이터를 조종함으로써 Chaucer가 획득하고 있는” 시의 “객관적 이미지”인 것이다.⁷⁾ 특히 Donaldson은 우리에게 도덕적 교훈을 “피하기 위해 애를 쓰는 나레이터의 뒤를 따르고,” 이어서 “이를 피하도록 그를 부추기다가, 결국에 가서 그가 이를 수용하는 순간 그를 밀쳐버리도록” 권고한다.⁸⁾ Chaucer가 획득하고 있는 시의 객관적 이미지는 바로 이러한 작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Donaldson의 주장이다. 일단 시의 객관적 이미지를 확인하게 되면, 마지막의 18 聯을 후에 가서 갖다 붙인 것이 아닌——나레이터가 이야기를 풀어 나가다가 결국 도달할 수 밖에 없었던——이른바 자연스러운 클라이맥스나 결론, 또는 Donaldson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상”(the head)으로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⁹⁾ 그러나, Donaldson 자신이 암시하고 있듯이, 나레이터는 중국에 가서 도덕적 교훈을 수용하게 되며, 그가 이를 수용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 “그를 밀쳐버릴” 권한이 없다. 바꿔 말해, 사랑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에필로그에서 나레이터가 수용하고 있는 도덕적 교훈

6) Kittredge 144.

7) E. Talbot Donaldson, *Speaking of Chaucer* (New York: Norton, 1970) 92.

8) Donaldson 92.

9) Donaldson은 작품의 마지막 부분을 에필로그라고 부르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에필로그라고 칭함으로써, “시인이 정말로 작품을 끝낸 후에 갖다가 붙인 것”이라는 느낌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92). 이어서 그는, “비록 이 부분의 특성—즉, 미심쩍은 왜곡 또는 때때로 드러나는 무책임한 분위기—으로 인해 이제까지의 이야기와 분리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부분이 시 전체의 정상으로 보인다”(92)고 말하고 있다.

도 받아들여야만 한다. 즉, 사랑 이야기와 도덕적 교훈 모두를 균형있게 고려해서 이루어진 *Troilus and Criseyde*에 대한 해명이 요구되는 것이다.

*Troilus and Criseyde*의 에필로그에 대한 수 많은 해명 중에서 John Steadman의 것이 특별한 주목을 끄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Steadman은 Boethius적 틀에 맞추어 작품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시도하고 있거니와, 시 전반에 산재되어 있는 “Boethius적 언명”과 함께 에필로그의 앞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Troilus의 “昇天”(flight)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의 논의는 “Troilus의 승천은, 사랑의 이야기 자체와 마지막 부분의 도덕적 일반화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줌으로써, 이 작품의 통일성을 깨뜨리려는 커녕 오히려 이야기의 일관성(coherence)을 증대시키고 있다”¹⁰⁾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즉, Troilus의 승천과 이에 이어지는 도덕적 판단을 통해, 시인은 “작품의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는 세속적인 행복에 대한 Boethius적인 명성을 하나의 예지로” 종합할 수 있었고, 따라서 “행위와 상황, 인물과 사유 사이에 존재하는 다층적인 아이러니를 영혼의 마지막 웃음”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 Steadman의 주장이다.¹¹⁾ 이러한 주장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Steadman의 논리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의문의 여지없이, Boethius적 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에필로그의 도덕적 교훈 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 흩어져 있는 “Boethius적 언명”에 대한 총체적인 해명이 가능할 수는 있다. 그러나 Troilus와 Criseyde의 사랑 이야기는 기껏해야 Boethius적인 교훈에 대한 하나의 반증적 예로 해석될 수 밖에 없게 된다. 만일 “세속적 즐거움의 허망함에 대한 Criseyde의 명성이든가 운명의 변화에 대한 Pandarus의 관찰,” “행운과 기회, 운명과 신의 섭리에 대한 Chaucer의 반복적인 언급”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Boethius적 교훈에만 우리의 관심을 한정시키게 되면, 에필로그가 “Chaucer의 로맨스가 갖는 Boethius적 맥락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는 Steadman의 주장¹²⁾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Chaucer가 아무리 강한 Boethius의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Steadman 자신의 말대로 “[Boethius의] *The Consolation of Philosophy*에 대한 주석서가 아니라, 한 편의 사랑 이야기”¹³⁾이다. 따라서 Boethius적인 언급보다는 사랑의 이야기 그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 관심대상이 되어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사실, Howard R. Patch가 지적했듯이, “행운과 운명에 대해 Chaucer가 행한 대부분의 언급은 [Boccaccio의] *Filistrato*에 나오는 유사한 귀

10) John M. Steadman, *Disembodied Laughter*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72) viii, 153.

11) Steadman 153-54.

12) Steadman 85.

13) Steadman 107.

또한 Steadman은 시인이 “그의 주의를 일차적으로 연인의 괴로움에 쏟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106).

절에 근거한 것¹⁴⁾이지 *The Consolation of Philosophy*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Boethius적 틀”을 고집하는 경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일종의 <티널 비전>이다.

Steadman의 Boethius적인 이해가 지니는 문제점은 또 다른 각도에서 지적될 수 있다. Boethius적인 틀에 맞추어서 Steadman은 “마치 Boethius의 뮤즈처럼 Chaucer의 뮤즈가 [도덕적 교훈을 전하고 있는 “철학이라는 숙녀” 옆에] 부끄러워 어쩔줄 몰라 하며 서 있다”¹⁵⁾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명백히, 이런 주장을 통해 Steadman은 사랑의 이야기를 하던 뮤즈와 에필로그를 통해 도덕적 교훈을 전하는 “철학이라는 숙녀”를 분리하는 동시에, 시의 일등함에 대한 철학의 우월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암시는, 시인이 “언어의 무상함과 문학의 덧없음을 의식하고 있다”¹⁶⁾는 Steadman의 발언에서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다. 사실상, 이러한 방식으로 문학을 비하하게 되면, 한 편의 문학작품인 *Troilus and Criseyde* 자체를 부정하는 시각까지도 수용하는 쪽이 되고 만다.¹⁷⁾ 적어도, 도덕적 교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Chaucer가 문학작품을 창작하였으며 문학작품은 그 자체로서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투의 소박한 논리는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비록 Boethius가 “철학이라는 숙녀”를 내세워서 “시의 뮤즈”를 꾸짖고 있긴 하지만, Boccaccio가 그의 *Genealogy of the Gods*를 통해 지적하고 있듯이, Boethius조차 “고대의 시와 신화를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시에 대해 최상의 정의”를 표시하고 있다¹⁸⁾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The Consolation of Philosophy*조차도 한 편의 문학작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Boethius의 비판이 <시 일반>이 아닌 어떤 특정한 종류의 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¹⁹⁾는 추론도 가능할 것이다. 요컨대, Boethius의 “뮤즈”에 대한 비판이 <시 일반>에 적용되는 것처럼 보는 Steadman의 주장에 논리적 결함이 있음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4) Howard R. Patch, “Troilus on Determinism,” in *Chaucer Criticism: Troilus and Criseyde & The Minor Poems* 77.

15) Steadman 144.

16) Steadman 155.

17) 작품에 대한 해설과 관련하여 Steadman이 보이고 있는 자기모순은 Troilus의 “승천”에 대한 해명에서도 드러난다. 그에 의하면, Troilus의 승천은 “그의 ‘기사도 정신이리든가 위대한 힘,’ ‘무자비한 전쟁’에서 그가 세운 공훈, 그의 ‘군인다움’과 ‘값진 행위,’ 그의 ‘분노’와 ‘겨분’ 등 등—인습적인 영웅적 미덕이나 공적”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52). 민일 이와 같이 Troilus의 사랑 이야기와 “승천”이 아무런 인과 관계를 지니지 못한다면, Steadman이 추구하는 이야기의 “일관성”은 제대로 설 수 없게 되고 만다. 나아가, 예술작품에 전제되는 통일적 구상의 원리조차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

18) Boethius, *The Consolation of Philosophy*, tr. Richard Green (Indianapolis: Bobbs-Merrill, 1962) 4n.

19) Green의 다음 설명에 유의할 것. “Boccaccio는 Boethius가 [*The Consolation of Philosophy*에 서] 다만 어떤 특정한 종류의 추잡한 詩詩만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다”(Green 4n).

Steadman의 해명과 관련하여 또 하나 부차적으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는 나레이터와 도덕적 교훈을 전하는 나레이터를 분리함으로써 작품의 전체적 통일성에 대한 논의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즉, 작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놓음으로써, Steadman은 애초에 자신이 의도했던 작품의 “일관성”에 대한 해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그리하여 에필로그는 사랑의 이야기와는 별개의 것——즉, “후에 갖다 붙인 것”——이라는 추정은 여실히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사랑의 이야기와 에필로그의 도덕적 교훈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않은 채, 양자를 모두 취하는 균형잡힌 시에 대한 이해는 전혀 불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Charles Muscatine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 주목하는 까닭은, 그의 발언이 위의 물음에 대한 희망적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Troilus and Criseyde*의 결론은... 철학적 은둔자가 내리는 반동적 결론도 아니며, 겁을 먹은 이교도가 상투적으로 내거는 경건한 철회성명도 아니다. Chaucer는 초연한 자세로 그의 세상을 관조하고 있거니와, 그가 여기에서 보이는 보수주의는, 그의 시대가 고유하게 지니는 체험적 현실을 대면하고, 느끼게 하는 동시에 이에 경통하도록 그를 이끈 비판적 보수주의이다.²⁰⁾

Chaucer가, Muscatine의 말대로, “초연한 자세로 그의 세상을 관조하고 있다”고 보는 가운데——즉, “그의 시대가 고유하게 지니는 체험적 현실을 대면하고, 느끼게 하는 동시에 이에 경통하도록 그를 이끈 비판적 보수주의”를 견지하고 있다고 전제할 때 만이, 우리는 *Troilus and Criseyde*를 통해 삶의 의미를 나름대로 드러내고 있는 시인 Chaucer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가 Boethius적 윤리의식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포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는 틀림없이 보수주의자이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거니와, 인간의 사령에 대해 나름대로의 독특한 이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Boethius적 윤리의식만으로는 *Troilus and Criseyde*라는 시 전체가 결코 만족스럽게 해명될 수는 없는 까닭은 바로 이러한 Chaucer 나름의 독특한 비판적 시각 때문이다. 아울러, Chaucer 나름의 독특한 비판적 시각을 간과할 때만이 이 작품을 “사랑의 신을 찬양하고 그 신의 놀라운 힘에 찬사를 보내는 시”라는 단순논리가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 바꿔 말해,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이야기의 배경으로부터 눈을 돌릴 때만이 이 작품을 “사랑의 신을 찬양하고 그 신의 놀라운 힘에 찬사를 보내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즉, Kittredge 자신이 말하고 있듯이,

작품을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된다. 말하자면, 이 이야기에는 행복한 연인들이 아무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 Pandarus 자신이 적사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며, Oenone는 Paris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이다. 또한 Helen은 도시를 혼돈의 가장자리로 몰아

20) Charles Muscatine, *Chaucer and the French Tradition: A Study in Style and Meaning*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57) 165.

간 장본인이다.²¹⁾

이와 같은 이야기의 배경이 *Filostrato*를 썼을 당시의 젊은 Boccaccio에게 별다른 호소력을 지니지 못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Troilus and Criseyde*가 비록 *Filostrato*를 모델로 하여 쓰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Chaucer까지도 이를 의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Chaucer가 이 이야기를 새롭게 다시 썼을 때에는 분명히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즉, 겉으로 보기에 “찬사를 보낼” 만큼 아름답게 보이는 사랑의 이야기 이면에 숨어 있는 어두운 의미를 Chaucer는 자신의 “비판적” 시선을 통해 포착했었는지도 모른다.²²⁾ 사실 이러한 “비판적” 시선은 이야기의 이면에 숨어 있다가 단지 에필로그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바로 이러한 비판적 시선이 표면적으로는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필로그의 도덕적 교훈이 엉뚱한 것으로 보이거나 시인이 돌연히 태도를 바꾼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작품의 이면에 숨어 있는 Chaucer의 비판적 시선을 확인하는 일이다.

II

*Troilus and Criseyde*를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인이 이 작품의 앞부분에서 암시하고 있는 인간사랑의 이중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대들이 앞으로 듣게 될 Troilus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지이다,
사랑이 그들에게 지고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또한 나를 위해 사랑하는 신에게 기도할지이다,
연인들이 전디어야 할 그런 고통과 비탄을
이 Troilus의 불행한 모험을 통해
요령있는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And preyeth for hem that ben yn the cas
Of Troylus, as ye may after here,
That Love hem brynge in hevene to solas.
And ek for me, preyeth to God so dere
That I have myght to shewe in som manere
Swych peyne and wo as Loves folk endure,
In Troylus unsely aventure. [I. 29-35]

독자들을 이야기의 세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서설을 통해 Chaucer는 인간의 사랑이

21) Kittredge 142.

22) 아주 자연스럽게, Chaucer의 작품과 비교해 보면, “Boccaccio의 작품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이다” (“Introduction” to *Troilus and Criseyde*, Fisher 401).

“폐락” 뿐만 아니라 “고통과 비탄”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세속적인 지혜는 논의의 중심부에 끌어드리기에 그 자체가 너무 진부한 것처럼 보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야기의 前景을 이루는 가운데, 이 세속적인 지혜는 *Troilus and Criseyde*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일종의 중심 주제가 되고 있다. 즉, 이 작품을 통해 시인이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감정의 지배를 동시에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의 적절한 예로, Troilus가 Criseyde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자마자 그에게는 “고통과 비탄”의 감정이 찾아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그가 Criseyde를 후에 얻게 되었을 때 맛보게 될 “달콤함” “폐락”을 보다 강렬하게 하는 자극제일 뿐이다. 즉, “이전에 겪었던 쓰디쓴 때문에, 이제 달콤함은 더욱 더 달콤함으로 느껴지게 되었고, 이윽고 고통에서 벗어나 무상의 기쁨으로 그들은 날아가게”(now swetnesse semeth more swete / That bitterness assayed was byforne, / For out of wo in blysse now they flete —III, 1219-21)된다. 당연히 Troilus가 Criseyde를 잃게 되었을 때 그가 느끼는 “환희”는 더욱 더 참기 힘든 “고통과 비탄”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다.

이 새로운 “고통과 비탄”과 함께 Troilus의 사랑 이야기는 사실적인 종결을 맞이하게 된다. “어떻게 [주인공의] 운이 고통에서 행복으로 바뀌고, 이어서 환희에서 벗어나게 되는가”(how [the hero's] adventures fellen / Fro wo to wele, and after out of joye— I. 3-4)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Chaucer는 “그의 문학의 전형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뒷이야기²³⁾로 이행해 나간다. 즉, “지상에서 천상으로 주인공의 영혼이 올라가게 되며, 결과적으로 그의 가치 척도는 세류계 제조된다.”²⁴⁾ 이와 같은 내용의 “승천” 에피소드는 *Troilus and Criseyde*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이 작품을 완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만일 Kemp Malone의 말대로 “주인공이 사랑을 얻고 잃는 과정의 첫부분을 장식하는 정점에 대응되는 또 하나의 정점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야 한다”²⁵⁾면, 이 에피소드는 이 문제에 대한 훌륭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눈을 돌리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바다로 둘러싸인 이 저지라는 자그마한 점을,

그리고 그는 이 가련한 세상을 마음 깊이

경멸하기 시작했다. 또한 천상에서 찾을 수 있는

원박한 즐거움과 대비하여

모두 허망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23) Robert Archibald Jelliffe, *Troilus and Criseyde: Studies in Interpretation* (Tokyo: Hokuseido, 1956) 253.

24) Jelliffe 253.

승천 이야기가 Boccaccio의 작품 속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Chaucer에게 전형적인 것이라는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Jelliffe가 지적하고 있듯이, 유사한 승천의 이야기는 “*Filistrato*가 아닌 *Teseide*에서 발견된다”(254)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구성상으로 Chaucer의 특징이 드러난다는 뜻에 유의할 것.

25) Kemp Malone, *Chapters on Chaucer* (Baltimore: Johns Hopkins, 1951) 106.

그가 살해되었던 곳으로 눈길을 돌렸다.

And down from thennes faste he gan avyse
 This litel spot of erthe, that with the se
 Enbraced is, and fully gan despise
 This wrecched world, and held al vanite
 To respect of the pleyn felicite
 That is yn hevene above; and at the laste,
 Ther he was slayn his lockyng down he caste. [V. 1814-20]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천상의 “완벽한 즐거움”이 “이 가련한 세상”의 “쾌락”(solas)과 대응 관계를 이룬다는 사실이다. 뒤집어 놓고 보면, Troilus가 경험했던 세속적인 “쾌락”은 단순히 하나의 “허망”일 뿐이며, 표면적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것으로 느껴졌던 “고통과 비탄”은 최후의 진정한 깨달음—즉, 인간의 사랑은 “맹목적 욕망”이라는 사실에 대한 궁극적인 깨달음—의 순간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다. 결국, Troilus가 사랑을 잃은 후에 느끼는 “고통과 비탄”이 동전의 한쪽 면이라면, 천상의 “즐거움”은 같은 동전의 다른 한쪽 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Troilus가 사랑을 얻기 전에 느끼던 “고통과 비탄”이 그가 후에 얻게 된 세속적 “쾌락”과 나누어 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조적 관점에서 볼 때, Troilus의 승천을 에펠로그에 위치시킴으로써, Chaucer는 그의 *Troilus and Criseyde*를 “Troilus의 이중적 슬픔”(The double sorwe of Troylus—I. 1)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중적” 즐거움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비록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명백한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Troilus가 Criseyde의 사랑을 얻기 전에 느끼던 “슬픔”이 보다 더 “달콤한” “쾌락”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과 같이, 사랑을 잃고 느끼는 “슬픔”은 “천상의 순수한 즐거움”이라는 보다 더 값진 것을 가능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세속적 사랑에 묻혀 있는 현에는, 또는 사랑을 잃고 난 후의 슬픔이 없다면, 사랑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의 순간을 체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추측컨대, Chaucer가 Troilus의 사랑 이야기를 자신의 시적 소재로 삼았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즉, 초월적인 깨달음의 순간은 상실과 고통을 전제로 할 때에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죽은 후이긴 하지만, Chaucer의 배려에 의해, Troilus는 진정한 깨달음의 순간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Troilus로 하여금 천상에 올라가 깨달음의 순간을 갖도록 배려함으로써, 시인은 시의 전개 과정에 하나의 새로운 轉機를 에펠로그 부분에 마련하고 있다. 말하자면, 주인공으로 하여금 천상의 진정한 “즐거움”에 눈을 뜨게 함으로써, 시인은 이어지는 도덕적 교훈이 Troilus라면 자연스레 전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즉, 시인은 독자들을 유도하여, 에펠로그의 도덕적 교훈이 세속적인 사랑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주인공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고 있다. 에펠로그의 도덕적 교훈을 갑작

스럽게 어조를 바꾼 나레이터의 것으로 보거나, 또는 새로 등장한 나레이터의 것으로 보는 견해는, 바로 이와 같은 시인의 배려를 간과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이 물음과 관련하여, Boccaccio의 *Filistrato*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니와, 이 작품의 경우 주인공 Troilus가 죽은 다음 곧바로 도덕적 교훈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Filistrato*의 도덕적 교훈은 어쩔 수 없이 시인 혹은 나레이터가 이야기를 마치고서 덧붙이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없다. 우연일지는 모르나, 각각 *Filistrato*와 *Troilus and Criseyde*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도덕적 교훈을 비교해 보면, 그 어조가 판이하게 다르다.²⁶⁾

오, 솟아오르는 사랑의 욕망이 나이와 함께
 마음 속에 다가오는 젊은이들이여!
 신에 길어 그대들에게 간구하건대,
 사악한 욕망의 충족에 쉽게 발을 들여 놓지 말 것이며,
 모든 여인네들을 믿지 말지어다. 젊은 여인은 허영심에 들떠 있고 변하기 쉽도다. 많은 여인네들이
 이... 사랑을 함에 있어 상대방을 자기 편이대로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만심과 경멸
 심에 가득 차 있도다. . . . 그러니 조심하고, Troilus와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길지어다. 아울러
 Troilus가 마음의 평정을 얻도록 사랑의 신에게 기도할 것이며, 그대들이 못된 여자를 사랑하고
 그 때문에 죽지 않도록 돌봐 주십사 기도할지어다.

O young people, in whom with your age
 Comes surging amorous desire,
 By god I pray ye that ye refrain
 Your ready steps to the evil appetite.
 Believe not all women. A youthful woman is vain and volatile. Many women . . . fancy they
 ought, in love, to have the advantage of the others, and are full of pride and scorn. . . . Then
 be cautious, and compassionate both Troilus and yourselves; and pray Love that he may be
 in peacc, and that you may be saved from loving and dying for a bad woman.²⁷⁾

오 남자든 여자든 젊고 활기찬 사람들이여,
 나이와 함께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자라나는 사람들이여,
 세속적인 허영을 멀리 할지어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에 따라 그대들을 강조하신
 바로 그 신을 마음으로부터 우리리 불지어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처럼 곧 사리지고 말 이 세상은
 다면 하나의 허영의 지장일 뿐임을 생각할지어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올라가 계신
 사랑의 신이신 바로 그분을 사랑할지어다.
 그는 누구도 배반하지 않느니, 내 감히 말하건대,

26) W.M. Rossetti, tr., *Chaucer's Troilus and Criseyde Compared with Boccaccio's Filostrato* (London: Truebner, 1888) 299-300 참조.

27) Rossetti 300.

믿음의 마음을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그리고 그의 사랑은 비할데 없고 부드러우니,
무엇때문에 거짓된 사랑을 쫓으려 하는가?

O yonge, fresshe folkes, he or she,
In which that love up groweth with youre age,
Repeyreth hom fro worldly vanyte,
And of youre herte up casteth the visage
To thilke God that after his ymage
Yow made; and thynketh al nys but a fayre
This world that passeth soone as floures fayre.

And loveth hym, the which that right for love
Upon a cros, oure soules for to beye,
First starf, and ros, and sit yn hevne above;
For he nyl falsen no wight, dar I seye,
That wole his herte al holly on hym leye.
And syn he best to love is, and most meke,
What nedeth feyned loves for to seke? [V. 1835-48]

위의 인용들은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어조까지도 서로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Robert A. Jelliffe가 지적하였듯이, “Boccaccio는 Fiametta와 헤어져 있음으로써 느끼는 자신의 불행감을 Troilo로 하여금 대신 드러내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²⁸⁾ 반면에, Chaucer는 “인간의 열정이 지나는 상대적 가치와 신의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간결하게 그러나 한결 더 심원한 지혜를 갖고” 말하도록, 즉 “Troilus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보다 중대한 대의명분을 위하여 말하도록 권함을 위임하고 있다.”²⁹⁾ Boccaccio가 Troilo를 단순히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노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한, 작품 안의 도덕적 교훈은 한계를 지니지 않을 수 없거나, 지극히 사적인 불만감과 원망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편이 되고 있다. 그러나, Chaucer의 경우, 시를 자신의 사적인 감정표출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다. Chaucer는 Muscatine의 표현처럼 “초인한 자세로 세상을 관조”하는 현자의 위치에 서서, Troilus의 사랑을 통해 그가 이해한 대로의 인간사의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Chaucer가 Troilus의 승천을 에펠로그에서 다루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를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Chaucer는, Boccaccio와 그의 주인공 Troilo가 나누어 갖고 있던 불편한 심기가 자신의 작품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roilus의 승천으로 인해 Troilus는 천상의 “즐거움”을 깨닫게 되었고, 따라서 주인공의 것이든 작가의 것이든 그 어떠한 불편한 심기도 개입될 여지가 남

28) Jelliffe 262.

29) Jelliffe 262.

지 않게 된다. 요컨대, Robert Kilburn Root가 지적하였듯이,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야기를 진하는” Chaucer는 “참여자라기 보다는 관망자”라고 할 수 있다.³⁰⁾ 결과적으로 *Troilus and Criseyde*의 도덕적 교훈은 “느낌의 아주 일정한 성실성과 표현상의 뛰어난 기교”³¹⁾를 동시에 획득하게 된 것이다.

Boccaccio의 도덕적 교훈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젊은이들이여, 못된 여자를 조심하라”이다. 그의 교훈에는 인간의 사랑에 대한 그 어떤 근본적인 회의도 개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Chryseis의 “사악한 욕망의 충족”과 Troilo의 진지한 사랑 사이의 대비가 엇보일 뿐이다. 그러나 Chaucer의 교훈은, “아름다운 꽃처럼 곧 사라지고 말 이 세상은 다만 하나의 허영의 시장일 뿐임을 생각할지어다”라는 말에서 일별할 수 있듯이, 이와 대조적으로 깊은 회의주의로 윤색이 되어 있다. 더욱이, Boccaccio의 교훈이 남성 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Chaucer의 교훈은 남성과 여성 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Boccaccio의 경우, 그가 *Filistrato*를 썼을 때 Fiametta라는 여인의 주목을 염두에 두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여자를 조심하라는 Boccaccio의 교훈은 진실로 아이러니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Troilo와 그 자신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슬픔에 연인의 주목을 돌리게 하려 했던 Boccaccio에게 그러한 아이러니는 의도적인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모든 숙녀”들에게 전하는 다음과 같은 그의 사과의 말에서도 일별될 수 있듯이, Chaucer는 자신의 도덕적 교훈이 남과 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나의 이야기는 남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못된 사람들에게 배반당하는 여인네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신이여 그들에게 슬픔을 내리소서!—
 대단한 죄를 부리고 술수를 써서 그대 여인네들을
 배반하는 자들을.

Ne I sey not this alonly for these men,
 But most for wommen that bytraysted be
 Thorough false folk—God yeve hem sorwe, amen!—
 That with hire grete wit and subtilte
 Bytrayse yow. [V. 1779-83]

위의 인용이 암시하고 있듯이, 인간의 사랑에 대한 연구에서 Chaucer는 <편파성>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말하자면, “대단한 죄를 부리고 술수를 써서 [상대를] 배반하는” “못된 사람”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모두에게 신께서 “슬픔을 내리”기를 Chaucer는 믿고 있는 것이다.

30) Robert Kilburn Root, “Introduction” to *The Book of Troilus and Criseyde by Geoffrey Chaucer* (Princeton: Princeton UP, 1926) xxviii.

31) Jelliffe 258.

그러나 신이 “슬픔”을 내린 사람이 Criseyde가 아닌 Troilus라는 점에서 볼 때, Chaucer의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는지 모른다. 여기에서 우리가 각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Troilus가 “대단한 패를 부리고 술수를 써서”—또는 Pandarus가 말하듯이 “최악의 내통수”(the worste trecherye—Ⅲ. 278)를 써서—Criseyde의 사랑을 얻으려 하고 있고, 또한 자기 자신의 세속적인 “패락”을 위해 그녀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Patch가 주장하고 있듯이, “그는 맹목적 패락에 굴복하는 죄를 범한 것이다.”³²⁾ 요컨대, Chaucer가 *Troilus and Criseyde*에서 드러내고 있는 인간의 사랑은 Janus적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거니와, Criseyde와 Troilus 그 누구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다른 각도에서 Troilus의 사랑을 이해할 여지를 Chaucer가 완전히 남겨 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작품의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듯이, Troilus의 사랑은 인간적인 미덕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지는 않다. 이 점은 특히 그의 사랑과 Diomedes의 사랑을 비교해 보는 경우 더욱 더 자명해진다. 결국, Troilus는 신랄하고 현명하며, 존경 받을 만한 동시에 활기차며 대변한”(goode, wyse, worthi, fresshe, and fre—Ⅱ. 317) 인물이며, 동시에 “인간세계가 지속되는 동안 찾아 보기 힘든 최고의 자질을 부여받은 사람 중 하나”(On of the beste enteched creature / That is or shal wil that the world may dure—Ⅴ. 832-33)이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한 인간이 최상의 미덕을 갖추었다고 해서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랑의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제주를 피고 남을 속여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 일종의 술수를 찾지”(founden o manere / of sleighte for to converen . . . chere—Ⅱ. 1511-12) 않고서는 상대방의 사랑을 얻기 어렵다는 투의 암시가 작품 속에 나오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애초부터 Troilus는 “사랑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들이는 노고와, 이를 지키기가 얼마나 불확실한가, 또한 먹이를 잃게 되었을 때 어떠한 고통과 후회가 따르는가”(swich labour as folk han yn wynnyng / Of love, and yn the keypyng which doutaunces; / And whan youre prey is lost, woo and penaunces—Ⅰ. 199-201)를 저울질하는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안에 숨길 것인지,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사랑으로 그녀를 어떻게 유혹할지”(What for to speke and what to holden inne; / And what to arten hire to love he soughte—Ⅰ. 387-88)를 십사숙고하고 있다. 아울러,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얼마나 많은 해가 따를까”(harmes myghte folwen mo than two / If it were wyl—Ⅰ. 614-15) 걱정하여, 즉 자신의 계획이 망가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Troilus는 본심을 감추기로 결심한다. 그는 또한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할 뿐만 아니라, “달콤한 적(swete fo—Ⅰ. 874)”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한 “사랑의 술책”까지도 끌어들이고 있다.

32) Patch 82.

그리하여 그는 사랑의 술책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숨김으로써 회복의 여지가 있을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아주 완벽하게,
처음에는 자신의 욕망을 꼭꼭 숨겨 놓은 채
은밀하게 일을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너무 알려진 사랑은 비록 달콤한 씨앗을 뿌리더라도
쓰디 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시고.

Thus tok he purpos loves craft to suwe,
And thoughte he wolde werken pryvely,
First to hiden his desir in muwe
From every wight yborn, al outrely,
But he myghte ought recovered be therby;
Remembryng hym that love to wyde yblowe
Yelt bitter fruyt, though swete seed be sowe. [I . 379-85]

“자신의 욕망을 꼭꼭 숨겨 놓은”식의 수동적 방법 이외에 Troilus가 사용하고 있는 실질적인 “사랑의 술책”을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은밀히 드러냄으로써 일을 만한 것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도 “사랑의 술책”임은 물론이다. 즉, 겉으로 보기에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는 “술책”이 적절한 시기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Troilus가 자신의 연애사건에 Pandarus를 끼어들게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자신의 “고통과 비탄”의 원인을 숨기겠다는 Troilus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Pandarus의 호기심이 자극되고 있는 것이다. 그의 호기심이 자극된 원인은 무엇인가? Troilus의 고의적인 술책은 아니었을까? 어쨌든, 무엇 때문에 “비탄”에 사로잡혀 있는지 밝힐 것을 Troilus에게 Pandarus는 종용하지만, “실제로는 열렬히 추구하는 것을 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때때로 술책이 됨”(Ek somtyme it is a craft to seme fle / Fro thyng which yn effect men hunte faste— I . 747-48)을 Troilus는 “마음 속으로 생각”(in his herte caste— I . 749)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Pandarus는 Troilus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된다.

자네의 슬픔을 나에게 모두 말하는 것이 최상책일세.
자네에게 맹세컨대, 곧 자네의 조력자가 될 것임을
자네는 알게 될 결세...

The best is that thow telle me al thi wo.
And have my trowthe, but thow it fynde so
I be thi bote bote. . . . [I . 830-32]

당연한 절차로, Troilus의 고백이 있은 후, Pandarus는 “Criseyde를 사랑하는 일에 조력자가 될 것”(ben his help yn lovyng of Cryseyde— I . 1010)을 약속한다. 이제 자신의 “사랑의 술책”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상,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일 이외에 Troilus가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위에서 제기했던 문제로 되돌아가서, Troilus가 무엇 때문에 “비탄”에 사로잡혀 있는가에 대해서 Pandarus 이외에 그 누구도 호기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Pandarus만이 Troilus의 비밀에 호기심을 갖는다는 이야기 자체가 개연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아주 묘하게도, Troilus가 그의 형제들 중 “가장” 사랑하는——즉 “마음 깊은 곳”(verray hertes prevyte—II. 1397)으로부터 사랑을 느끼는——Deiphobus조차 Troilus가 피로와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눈치채고 있지 못하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답이, Criseyde의 요구에 대한 Pandarus의 답변에서 암시되고 있다. “그의 비탄을 맨 처음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를 말해 달라”(Tel me how first ye wysten of his wo—II. 501)는 Criseyde에게, Pandarus는 Troilus의 잠꼬대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즉, 언젠가 Troilus와 함께 운동경기를 하는 도중에 그가 “졸립다고 하면서, 잔디 위에 몸을 누였던”(wolde slepe, / And on the gres adoun he leyde hym—II. 514-15) 적이 있었음을 Pandarus는 밝히고 있다. 바로 이러한 잠꼬대 때문에 Pandarus가 눈치를 채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Troilus의 행동이 전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점이다. 운동을 즐기다가 갑자기 졸음을 느낄 수도 있을까? 비록 운동하다가 졸음을 느끼는 피상한 습성을 Troilus가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Pandarus만이 그의 비탄에 주목했다는 사실은 여전한 의문사항으로 남게 된다. 비슷한 상황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도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결국, Troilus 행동의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이야기 자체를 Pandarus가 즉흥적으로든 계획적으로든 꾸며낸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다.³³⁾ 그러나, 만일 Pandarus가 꾸며낸 것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제기한 개연성의 문제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즉, Pandarus만이 Troilus의 비탄에 주목하게 된 까닭이 무엇인가에 대해 여전히 설명을 해야만 할 것이다. 게다가, Boccaccio의 *Filostrato*와 대조해서 읽어 보는 경우, Chaucer가 상당히 애를 써서 이 부분의 이야기를 나름대로 변형시켜 놓고 있거니와, 만일 Pandarus의 꾸밈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Boccaccio의 서술만으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애를 쓰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해명도 뒤따라야만 할 것이다.³⁴⁾

33) Fisher의 다음 설명을 참조할 것. “이러한 내용이 제 I장 547행 다음 부분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건은 어쩌면 진짜로 일어났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이야기가 전개되어 감에 따라 충분한 드러나고 있듯이—Pandarus의 특징 중의 하나가 진실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때도 꾸며 둘러대는 성향이다”(Fisher, ed. 431n).

34) 사실상, Troilus와 비교해 보면, *Filostrato*에 묘사되어 있는 Troilo의 행동은 한결 더 자연스럽다. 즉, Troilo는 Pandaro와 함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노래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어느 날엔가 휴전협정이 이루어져 온 세상이 평온해졌을 때, 여가를 보내기 위해 Troilo가 함께 그늘진 숲 속으로 가자고 했던 적이 있었었지.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가 나중에 혼자서 노래를 부르더군”(The other day, things being in a calm / Through the truce then made, a fancy took / [Troilo] that I with him through shady

요컨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Chaucer의 Pandarus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만일 Pandarus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신의 욕망을 신중하게 감추고 있는 Troilus가 어떤 특정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고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Pandarus가 Criseyde와 혈연적인 관계에 있고 그녀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Troilus를 위한 사랑의 길을 트기 위해 특별한 사명을 띠고 Pandarus가 Criseyde를 만나러 갈 때, Janus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출입의 신이신 Janus여, 이제 그를 인도하소서!”(Now Janus, god of entre, thow hym gyde!—II. 77). 두 얼굴의 신인 Janus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있는 Troilus 자신의 인도자이다. 이제부터 Janus는 Pandarus에게도 없어서는 안될 인도자가 되고 있거니와, “이제 막 시작되는”(here bygynneth—I. 868) 사랑의 게임에서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Troilus를 대신해서 Pandarus는 Criseyde에게 “우정으로서의 사랑”(love of frendshipe—II. 371)을 호소한다. 이어서 그는 Troilus에게 “소금기어린 눈물로 적신”(with his salty terys . . . he bathe—II. 1086) 편지를 Criseyde에게 보낼 것을 충고한다. 이윽고 Pandarus는, Troilus로 하여금 Deiphobus의 집에서 은밀하게 Criseyde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함으로써,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이제 Troilus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면 그만이다. “여기 자네의 배개를 가져 왔네”(ibrought have I thi bere—II. 1638)라는 Pandarus의 농담에 미소까지 띠던 Troilus는 Criseyde의 앞에서 태도를 바꾸고 있다. “거의 울먹이면서”(wepte almost) Troilus는 “오 전능하신 신이여, 당신은 제가 얼마나 가련한지 알고 계십니까. 저들이 누구인지 진실로 알아 볼 수가 없나이다”(Wher me be wo, O myghty God, thow woost! / Who is al there? I se nought trewely—III. 66-67)에서 암시되는 갑작스러운 태도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극단적 연극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사랑의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닐까?³⁵⁾

woods / Should go for pastime. // We began talking of love. Then he sang to himself—Rossetti 59).

35) Chaucer는 또한 Criseyde조차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인물로 제시하고 있다. Fisher는, “Pandarus의 치밀한 준비 덕분에 Criseyde의 저항은 극복되고, 제 3권에 이르러 Pandarus의 집에서 두 연인이 정사를 치르게 되지만 그녀의 이름은 더럽혀지지 않는다”(Fisher, ed. 401)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Criseyde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Pandarus의 술수에 넘어간 희생자라면, 무슨 이유로 나레이더는 “Troilus가 미움을 벗어나 다른 곳에 있다고 Pandarus가 말했을 때 그녀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의 지자가 충분히 밝히려 하지 않았다”(Nought list myn auctour fully to declare / What that she thoughte whan that he seyde so, / That Troilus was out of towne yfare—III. 575-77)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Criseyde도 의도적으로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비록, 그녀의 꿈(II. 925-31)이 암시하고 있듯이, 처음부터 그녀가 Troilus에 끌렸다고 하더라도, 그녀는 의도적으로 Troilus와 기리를 유지함으로써, 더욱 더 그를 애타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하나의 계락을 통해 Pandarus가 Troilus를 결정적 순간에까지 인도해 갔을 때 Troilus는 자신의 사랑이 어떤 성질의 것인가 드러내고 있거니와, 이에 대한 주목이 또한 요청된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가게 된 시간을, 그가 태어난 시각을
그는 마음 속으로 저주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좋지 않던 것이 이제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까지 그가 한 모든 노고가
허사가 되었다고, 이제 비림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아아 Pandarus,” 그는 속으로 말했다, “자네의 계락이
쓸모없게 되었네, 노고가 허사가 되고 말았네.”

And in his mynde he gan the tyme aorse
That he cam there, and that he was born,
For now is wykke iturned unto worse,
And al the labour he hath don byforn,
He wend it lost; he thoughte he has but lorn.
“O Pandarus,” thoughte he, “allas, thi wyle
Serveth of nought, so welaway the while.” [Ⅲ. 1072-78]

위의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가 암시하고 있듯이, “이제까지 그가 한 모든 노고”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좋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Troilus가 부끄러움과 낙담의 순간을 맞이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노고가 허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또한 “계락이 쓸모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괴로와 할뿐이다. 바꿔 말해, Troilus는 Pandarus와 그가 “계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계락”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데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위의 인용의 마지막 두 행에서 암시되고 있듯이, Troilus는 책임을 Pandarus에게 전가하고 있다. 심지어, 그는 “모든 것이 알려졌을 때 비난 받을 사람은 자기가 아님”(Whan al is wylt, than am I not to blame—Ⅲ. 1085)을 되뇌인다. 요컨대, 그 어떤 고귀한 사람도 사랑의 게임 앞에서 꺾이지 못하며, 에필로그의 도덕적 교훈에서 요약되고 있듯이 인간의 사랑은 “맹목적”인 동시에 “그릇된” 것이다. 인간의 사랑이 “그릇된” 것은, Criseyde가 마지막에 가서 신의를 깨뜨렸기 때문만이 아니라, Troilus가 정직하게 사랑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간의 사랑이 어떠한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가에 대한 Chaucer의 탐구는 여기에서 중단되지 않는다. 우리가 인간의 사랑에 대한 Chaucer의 탐구와 관련하여 Troilus와 Criseyde라는 두 연인이 서로에게 맺고 있는 관계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두 연인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대상이 되는 것으로 믿는다. 말하자면, 서로에게 똑같이 의미있는 대상이 되어, 두 연인 사이에 일종의 평형상태, 즉 대등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피상적인가를 Chaucer는 Troilus와 Criseyde의 관계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사랑의 게임이 시작되는 첫단계에 Criseyde에게 주어진 역할은 수동적인 것이다. 즉, 그녀는 수동적인 추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랑을 얻기 위해 애를 쓰는 가운데, Troilus는 능동적인 추구자의 역할을 떠맡게 된다. 그러나, Troilus가 Criseyde의 사랑을 얻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反轉이 그들의 관계에 일어나게 된다. 이제 Troilus는 수동적인 수혜자 또는 보다 정확히 말해 상대방의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랑의 노예가 된다. 이러한 상황의 반전을 우리는, Troilus가 Criseyde에게 자신이 생명이 그녀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다음의 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께서 당신에게 봉사하도록 나를 창조하셨기에—
내 말은, 그대는 나를 실릴 수도, 그대가 원한다면,
죽일 수도 있는 나의 아내지가 된다는 뜻이오—
그리니 당신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나를
가르쳐 주시오, 부지불식간에 당신을 괴롭히는 일을
조금이라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Syn God hath wrought me for I shal yow serve—
As thus I mene, that ye wol be my sterve,
To do my lyve, if that yow lyste, or sterve—
So techeth me how that I may deserve
Youre thank so that I thorough myn ignoraunce
Ne do nothing that yow be displeaunce. [Ⅲ. 1290-95]

이에 앞서, Troilus는 자신이 사랑의 “하인”임을 여러 차례 독백을 통해 인정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독백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위의 상황은 한결 더 시사적인 의미를 띠게 된다. 즉, Troilus가 Criseyde를 얻은 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사랑의 노예임을——그것도 Criseyde의 앞에서——인정함으로써, 사랑의 게임에서의 승리자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無化시키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얻은 것은 자신의 의지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이다. 당연한 결과로 이제 수동적인 추구의 대상에 불과했던 Criseyde는 능동적인 수혜자, 또는 사랑의 게임을 주도하는 자의 위치에 서서, 상대의 의지를 마음대로 지배하게 된다. Monica McAlpine의 도식화에 따르면, Troilus와 Criseyde 사이의 관계 변화는 대칭적 역전(symmetrical reversal)으로 규정 지을 수 있다. 즉,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애쓰던 Troilus는 Criseyde의 사랑에 의지해서 살 “운명”에 놓이게 된 반면에, “자신의 ‘의지’를 표명”할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Criseyde는 “자유롭게” 된 것이다.³⁶⁾ 이러한 관계의 반전으로 인해, 마지막의 위기는

36) Monica E. McAlpine, *The Genre of Troilus and Criseyde* (Ithaca: Cornell UP, 1978) 148-49,

필연적인 귀결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Troilus가 고집스럽게 Criseyde의 사랑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된 반면에, Criseyde는 자유롭게 Troilus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내적 갈등이나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Criseyde는 쉽게 사랑의 대상을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아아!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저지를 수 있는 한
그들에게 최대의 불명예를 안겨 주었다고 하겠지.
비록 잘못을 저지른 첫번째 사람은 아니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 이 괴과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더 나은 길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되돌이키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직어도 Diomedee에게 나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지.

Thei wol seyn, inasmuche as in me is,
I have hem don dishonour, weylaway!
Al be I not the firste that dide amys,
What helpeth that to don my blame away?
But syn I se ther is no better way,
And that to late is now for me to rewe,
To Diomedee algate I wol be trewe. [V. 1065-71]

경우에 따라서는 Criseyde의 배신이 “마음의 흔들림”(slydyng of corage—V. 825)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류의 주장은 마음 약한 한 여인이 어쩔 수 없어 저지른 배신을 미화하는 가운데, Criseyde에 대한 변명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펠로그를 통해 전달되는 Chaucer의 비판적인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 삶에 대한 Chaucer의 비판적 시선에서 Criseyde만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천상에서 Troilus가 인간사의 모든 것을 덧없이 사라지고 말 “맹목적 욕망”(blynde lust—V. 1824)이라고 비판하고 있을 때, Criseyde는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일까? 만일 Troilus가 여전히 세속적인 인간으로 남아서 Criseyde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있다면, 그녀를 옹호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Chaucer와 함께 이제 Troilus는 세상을 관조하는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인간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Troilus와 Chaucer 그누구도 “마음의 흔들림”을 미화하거나 옹호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없다.

III

Troilus와 Criseyde의 사랑이 그 이면에 숨기고 있는 의미에 대한 이제까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다. 만일 Troilus가 “대단한

피를 부리고 술수를 써서” Criseyde의 사랑을 얻고자 하였다면, 그도 역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덟번째 天空의 세계에 이르기까지”(Up to the holughnesse of the eighte spere~V, 1809)의 승천이 그에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얼핏 보기에, 도덕적 타락에 대한 인과응보의 논리가 무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점은,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Troilus는 천성적으로 미덕과 선의를 지닌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 그는 인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Troilus and Criseyde*의 제 5권에 나타난 Troilus의 성격적 발전에 주목할 것이 요구된다. Criseyde와 떨어져 있게 되었음에 비탄하는 제 5권 앞부분의 Troilus와 그녀의 불성실함에 괴로움을 느끼는 제 5권 뒷부분의 Troilus를 비교해 보는 경우, 흥미로운 변화가 일별된다.

나의 사랑스럽고 소중한 여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녀의 희디 흰 가슴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어디에 있는가?
지난 밤 이맘 때쯤에 나와 함께 있던
그녀의 관과 청명한 그녀의 눈은 어디에 있는가?

Wher is myn owene lady lief and dere?
Wher is hire white brest? Wher is it? Where?
Wher ben hire armes and hire eyen clere
That yesteynght this tyme with me were? [V. 218-21]

오 나의 여인 Criseyde여,
그대의 신의는 어디로, 그대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그대의 사랑은 어디로, 그대의 정결은 어디로 갔는가?

O lady myn Criseyde,
Wher is youre feyth, and where is youre byheste?
Where is youre love? Where is youre trouthe? [V. 1674-76]

McAlpine이 지적하고 있듯이, “Troilus의 관심은 물리적인 것에서부터 정신적인 것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또한 자기 자신의 상실에서부터 Criseyde의 상실로 옮겨가고 있다. 초기의 비탄에서 Troilus는 Criseyde를 자신의 행복의 부속물로 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니와, 이러한 비탄은 일종의 메신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뒷부분에서 Troilus는 Criseyde를 자율적인 인간으로 존중하고 있거니와, 그녀의 도덕적 성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녀의 행동이 무엇보다도 문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³⁷⁾

마지막에 가서 Troilus는 Criseyde가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변할 수 없음을 신언한다. 즉, “그대에 대한 사랑을 잠시 동안이라도

37) McAlpine 175.

멈추고자 하는 뜻을 내 마음 속 어느 곳에서도 결코 찾아 볼 수 없다”(I ne kan nor may, / For al this world, withinne myn herte fynde / To unloven yow a quarter of a day—V. 1696—98)라는 그의 코백이 암시하듯이, 이제 Troilus는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 떨어져 있거나 어느 한 쪽이 불성실하다고 해도 여전히 번치 않는 마음으로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요컨대, 인간의 사랑을 지배하는 세속적인 특성——말하자면, 상대의 불성실을 알아차렸을 때, Pandarus가 말하듯이, “신에 맹세코 나는 그녀를 영원히 증오하겠다”(God wot I wol hate hire everemore—V. 1733)라는 투의 반응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의 이기적 특성——을 Troilus는 절망 속에서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Chaucer가 에필로그에서 암시하는 Troilus의 사랑은 예수의 사랑과 같은 차원의 사랑, 즉 이타적인 사랑으로 승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된 Troilus에게 “여덟번째 천공의 세계에 이르기까지”의 승천은 매우 적절한 보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³⁸⁾ 말하자면 인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이타적 사랑에 도달하였다는 점에서 Troilus는 보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Troilus를 통해 Chaucer가 말하고 있듯이, “대단한 피를 부리고 술수를 써서” 얻어지는 인간의 사랑이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점에서 “맹목적”이고 “그릇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Troilus and Criseyde*라는 작품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Chaucer의 예술적 구도에 대해 잠깐 주목해 보기로 하자. 작품의 맨 뒷부분에 도덕적 교훈을 위치시킴으로써, Chaucer는 독자들로 하여금 Troilus와 Criseyde의 사랑이 숨기고 있는 부정적 의미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오히려, “사랑의 신을 찬양하는 시”라는 표면적인 의미에 독자들의 주의가 집중되도록 배려한 듯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배려는 아주 의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거니와, 먼저 시인은 이야기의 시작에서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사랑 이야기가 지니는 표면적 의미를 즐기도록 허락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사랑은 비록 세속적 욕망에 묶여 있다고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것인 양 느끼도록 <그릇된 인상>을 시인은 의도적으로 심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에필로그를 통해 Troilus의 사랑 이야기가 지니는 심층 의미, 또는 아이러니칼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는 가운데 시인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마지막에서부터 <소급하여> 되돌아켜 읽고 되돌아켜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에필로그의 도덕적 교훈을 시의 시작 부분이나 중간 부분에 삽입하였더라면, 사랑의 이야기가 지니는 표면적인 의

38) 어떤 이는 여기에서, Troilus가 “Diomedee에게 복수를 하려 했다”는 점에서 천상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MacAlpine이 지적하고 있듯이, “여성을 얻기 위해 남자들간에 경쟁을 한다는 투의 생각은 Greece인이나 Troy인 또는 그들의 후예인 시구인들의 생각에 너무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Helen이나 그에 대응하는 여인을 놓고 자주 살육전을 벌여 왔다. 아마도, Troilus에게 자신의 문화 자체를 완전히 초월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 될 것이다”(174).

미——즉, 흥미롭고 긍정적인 의미——는 그 힘을 상실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Troilus와 Criseyde의 사랑 이야기에 대한 독자들의 흥미는 감소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도덕적 교훈을 마지막 부분에 위치시킴으로써, 시인은 <이중적 의미>의 가능성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Pandarus가 말하듯이, “마지막 부분에 모든 이야기의 요점이 있다” (the ende is every tales strengthe—II. 260)고 하지 않을 수 없다.

Chaucer's Critical Vision of Human Love:

The Function of the Epilogue in *Troilus and Criseyde*

Gyung-ryul Jang

The central thesis about Chaucer's *Troilus and Criseyde*, proposed by Kittredge and virtually unchallenged ever since, is that it "professes to be a poem in praise of the God of Love and in celebration of his wondrous powers." Based on this thesis, many Chaucerians point out that "the moral" presented in the epilogue is not only obtrusive but also inconsistent with what has been related before: in the epilogue, human love is "dampned" as "blynde lust" or "worldly vanyte."

If, however, we read the poem as an ironic and detached portrayal of human love, we can give full credit to Shanley's argument that "the epilogue is no mere tacked-on moral but is implicit in the whole poem." As a matter of fact, Chaucer is not simply presenting us a love story "in praise of the God of Love"; rather, he is presenting a story whose surface appears a praise of human love, but behind which his critical vision of human love is tactfully hidden. Note, in particular, that Troilus wins Criseyde with "grete wit and subtilte" or with, as Pandarus puts it, "the worste trecherye," and pursues her for his own worldly "solas." Such an observation is, in a sense, summed up only in the epilogue, causing many critics to argue that the epilogue is self-contradictory.

Viewed in this light, we may conclude that, by placing the moral at the end of the poem, Chaucer deliberately makes it difficult for us to catch what Troilus' love story hides behind, leading us to enjoy the surface meaning of the story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Thus, we get the wrong impression to the last moment that human love is a glory. At the end of the poem, however, Chaucer forces us to think over the deep or ironical meaning of Troilus' love story, and thus to *re-read* or *re-understand* the story retrospectively from the end. Were the moral given at the beginning of the poem or elsewhere, the seemingly bright side of the love story would lose its force, thereby decreasing our interest in the love affair of Troilus and Criseyde. By placing the moral at the end, the poet successfully secures the possibility of double meanings. Truly, as Pandarus says, "the ende is every tales strengthe."